

센 후들이 온다



쌍용 '렉스턴'



기아 '모하비'

의 대형 SUV로, 디자인은 부산모터쇼에서 공개된 콘셉트카 'HDC-2 그랜드마스터'의 외형을 이어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아차는 '대형 SUV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모하비 '2019년형'을 출시하고 고객 확보에 나섰다. 모하비는 2008년 첫선을 보인 이후 최근까지 국내에서 10만982대가 팔린 대형 SUV 대표 모델이다.

국내 유일의 후륜구동 기반 프레임보디 타입 대형 SUV에 국산 SUV 중 가장 배기량이 큰 3.1 디젤 엔진을 탑재한 점, SUV임에도 고급 내장재와 편의 장비를 갖춘 점 등이 호응을 얻으며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다. 2019년형 모하비에는 기존 최상위 트림인 '프레지던트'에만 기본 적용됐던 상시 4WD 시스템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됐다.

쌍용차 렉스턴은 지난 2001년 출시된 이후 18년째 동일한 차명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 SUV로, 현재까지 24만842대가 팔려나갔다. 지난해 G4 렉스턴으로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친 뒤 올해 디자인을 바꾸고 편의사양을 확대하는 등 상품성을 강화한 '2019 G4 렉스턴'으로 고객 불몰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한국 GM도 내년 대형 SUV 트래버스(Traverse) 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올해 부산 모터쇼에서 선보였던 트래버스는 전장이 5m가 넘고 미국시장 기준 동급 최대 3열 레그룸(850mm)에 2781ℓ 트렁크 적재용량을 갖췄다.

◇'회장님 차' 대신 '젊은오빠' 스타일로=대형 세단도 한결 젊어진 오빠 스타일로 외모를 바꾸고 고객 눈길잡기에 나섰다.

현대차가 오는 27일 내놓는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의 경우 최근 공개된 티저 이미지에서 기존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EQ900에 비해 신선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젊어졌다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업계 평가다.

G90의 외장 디자인은 '수평구조의 실현'을 주제로 풍부한 볼륨감이 어우러지도록 했고 전면·측면·후면부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며 차 전체를 감

싸는 쿼드 램프가 특징이다.

실내는 에어 벤트, 오디오 스위치 등을 최대한 수평적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센터패시아 스위치 개수를 줄이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했고 국내 차 최초로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지능형 차량 관리 서비스 등 한층 강화된 정보기술(IT)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기아차 '더 K9'은 6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을 내놓은 이후 지난 4월부터 매월 1000대 이상 팔려나가고 있다. 오너드라이브를 위한 세단을 추구하면서 편안함과 세련됨, 18개나 적용된 첨단 주행 신기술 등을 자랑한다. K9에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인 '모리스 라크로와'의 아날로그 시계를 부착하는가 하면, 미국의 색상 관련 권위 있는 기관인 '팬톤 색채 연구소'와 협업한 '엠비언드 라이트' 무드조명을 실내 16곳에 설치, 젊고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형 SUV

현대 '팰리세이드' 美서 28일 공개
기아 2019년형 '모하비' 출시
쌍용 'G4 렉스턴' 디자인 변경
안전·편의성 강화 마케팅 총력전

대형차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형 SUV는 힘과 몸집을 키워 소비자들 시선을 잡을 데세다. 대형 세단은 '회장님 차'라는 인식을 떨치려 하는 듯 외모를 젊게 꾸미고 가성비에 첨단 기능까지 갖추며 고객 눈길 붙들기에 나섰다.

◇SUV, 큰 눈물이 온다=현대차는 오는 28일 미국 LA 모터쇼에서 공개하는 플래그십(대표) 대형 SUV '팰리세이드(PALISADE)'로 대형 SUV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

'팰리세이드'는 운전석부터 3열 승객석까지 고객 요구를 반영한 디자인과 패키지, 안전·편의 기술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실내 공간을 넓히고 편의성 측면에서 소외됐던 3열 승객까지 고려해 운전자와 모든 탑승객이 이동하는 동안 여유롭게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디자인과 신기술을 적용했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팰리세이드는 베라크루즈의 계보를 잇는 신타페 워그

대형 세단

현대 'G90' 젊은 오빠 스타일로
기아 '더 K9' 고급 이미지 강조
디자인 주력 '회장님 차' 이미지 탈피
첨단 주행 능력·안전성 과시

부품 6500개 바꾼 '더 뉴 벤츠 C-클래스'

더 뉴 220 d 출시...엔진 동급 최고 수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C-클래스가 새롭게 출시됐다.

벤츠의 미드사이즈 세단인 C-클래스는 전신인 190(W 201) 모델이 1982년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950만여대가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구성 요소의 절반 이상인 6500여개의 부품을 변경해 대대적으로 혁신했다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디자인에서는 전면 범퍼와 헤드램프, 테일램프 등이 새롭게 바뀌었다.

또 새로 적용된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은 S-클래스와 똑같은 사양으로 향상된 조작성과 높은 품격

을 선사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기본사양으로 탑재된 커맨드 온라인 NTG 5.5 버전은 벤츠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텔레매틱스 시스템으로 10.25 인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3D(3차원) 지도가 적용됐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 플레이를 모두 지원한다.

엔진으로는 새로운 직렬 4기통 디젤과 가솔린 엔진, 그리고 가솔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등이 탑재된다.

이 중 이날 출시된 더 뉴 220 d에 탑재된 디젤 엔진(OM 654)은 최적의 효율성과 동급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췄다는 설명이다. 줄어든 배기량과 16%의 무게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전 엔진보다 출력은



24마력 증가해 최고 출력 194마력, 최대 토크 40.8 kg·m의 성능을 낸다.

아울러 더 뉴 C-클래스 전 라인업에 탑재된 커넥티드 카 서비스인 메르세데스 미 커넥트에는 리모트 엔진 스타트 기능이 추가돼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탑승 전 시동을 걸거나 공조기를 원격 작동할 수 있다. /연합뉴스

현대 신타페, 손가락만 대도 '부릉~'

중국형 성다, 세계 첫 지문인증 탑재 출입·시동 기능

운전자 등 록한 지문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현대차가 최근 중국에서 열린 '2018 광저우 국제 모터쇼'에서 선보인 중국형 신타페 '성다'는 세계 최초로 지문인증 출입·시동 기능이 탑재됐다.

운전자의 지문 정보를 미리 입력해놓으면 자동차 열쇠 없이도 차량 도어를 열고 닫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시동도 걸 수 있다.

지문 인정이 이뤄지면 좌석과 아웃사이드 미러가 운전자 설정에 따라 자동 조정되도록 고객 맞춤형 기능을 구현했다.

여기에 초음파 센서 감지로 영유아를 비롯한 뒷좌석 동승자의 차량 내 방치사고를 예방해주는 후

석 승객알림(ROA)이 중국 최초로 탑재됐고 안전하차 보조(SEA),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 등 첨단 안전·편의사양도 대거 적용됐다.

국내 출시된 신타페를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의 운전 습관과 기호를 반영해 상품성을 높인 고급 SUV로 재탄생시켰다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디자인은 육각형 모양의 와이드 캐스캐이딩 그릴, 분리형 컴포지트 라이트, 미래지향적 느낌의 리어램프 등을 적용했고 국내 모델보다 길이가 160mm 늘어난 4930mm에 이른다. 휠베이스도 국내 모델 대비 100mm 확대해 동급 최고 수준의 2·3열 실내 공간과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